

Contents

발간사	2
연혁	4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5
 경제동향과 지원시책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7
중소기업육성시책	9
 201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13
2011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14
정책자금 융자	17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39
연수	46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50
정보제공	64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65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66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68
 2012년 사업추진방향	71
 부록	7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74
2011년 발간 간행물	77
2011년 주요행사	78
조직도	79
운영위원 및 임원	80





현장과 동고동락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참병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2010년의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1년도 우리 경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외환 유동성의 적절한 공급을 통하여 3.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 정책의 비전을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창업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2011년도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책자금의 66.8%인 2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진단을 통해 애로를 분석한 후 처방전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건강진단사업, 현장애로 해결형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사업, 내수에서 수출중소기업에까지 이르는 단계별·맞춤형 마케팅 사업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 인력, 마케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정책집행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등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를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 지역본·지부를 7개 더 신설하고, 13개 청년창업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더욱 다가가는 조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발굴하여 중진공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결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수요 발굴 및 중개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의 건강관리시스템과 같이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진단 → 처방 → 치료」방식의 '문제해결형 지원시스템'인 건강진단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마케팅, 연수 등 개별사업들을 연계지원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능력과 글로벌 위기극복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자금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단 한번의 실패로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소위 '성실한 실패자'에게는 융자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등 급박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하여 단기치료인 앰블런스맨 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공간, 자금, 장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금년에는 지방연수원(광주, 경산, 창원)으로 확대 설치하여 청년창업의 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지원, 인력, 마케팅부문도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3년간 저희 중진공에 성원을 보내주신 중소기업,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항상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이사장

박철규

연혁

- 1979.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 '78. 12 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설립 및 기금 설치
- 1982. 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 '01. 9 호남, '03. 11 대구·경북, '04. 10 부산·경남
- 1985. 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 '08. 12 경남서부지부 신설로 13지역본부, 10지부
- 1989. 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 1998. 7.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 실시
• 제8차 경제대책조정회의('98.7)
- 1998. 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BI 설치
• 주요 11개국 17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 2002.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 기금명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2006. 9.

사업전환지원센터 및 무역조정지원센터('07.4) 개소
- 2007. 1.

국가간 중소기업협력을 위한 코리아데스크 설치
• 필리핀('07.1), 인도네시아('08.1)
- 2008. 6.

정책자금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 산기반자금 및 국내수출지원업무 인수, 해외사무소 폐지
- 2009. 1.

산기반자금 통합 및 기금명칭 변경
• 기금명칭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1. 5.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 2011. 12.

광역본부 신설 및 지역본(지)부 확대하여 현장 경영 강화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본부 신설
• 24개 지역본(지)부→31개 지역본(지)부 : 7개 신설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미션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비전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

비전목표 : 2020년까지 건강모델기업 2020개 육성

경영철학
핵심가치

▶ 기관장 경영철학 (슬로건)

함께하는 기업병원

「건강진단 → 처방」을 통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핵심가치 (SBC WITH you)

전문성
Workforce

청렴
Integrity

W I
T H

고객지향
Together

일체감
Harmony

중장기
전략목표

1

청년창업의
중심

2

지속성장의
엔진

3

공공기관의
모델

전략
과제

① 기술·지식창업청년
CEO 양성

④ 건강진단기반 연계지원
체계 마련

⑦ 직접대출 손실률 5%대
유지

② 지역본부 청년창업센터
운영 정착

⑤ 뿌리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⑧ 고객만족도 93점이상
달성

③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⑥ 수출초보기업 중점
지원

⑨ 최상의 정책중개기관

경제동향과 지원시책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중소기업육성시책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경제동향

2011년 한국경제는 상반기 수출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글로벌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경기둔화로 전년대비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출항목별로 수출(10.0%)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민간소비(2.2%)와 설비투자(3.8%)의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6.5%)가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7.1%)이 견실하게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2.6%)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업(△5.6%)은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수출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5,565억달러, 수입은 23.3% 증가한 5,24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21억달러 흑자('10.2월 이후 23개월 연속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국이후 63년만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세계 9번째) 하였다.

취업자 수(24,244천명)는 전년대비 41만5,000명 증가하여 정부 예상 목표치인 33만명을 뛰어넘으며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도 3.4%로 0.3%p 하락하였다. 취업구조 측면에서 임금근로자중 상용직은 전년동기대비 57만5,000명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은 7만8,000명, 7만명 감소하여 고용안정성이 개선되었으나, 20대의 고용률이 58.5%(30·40·50대: 약 70%)로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현안과제이다.

생산자물가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 및 이상기후 여파로 6.1% 상승('08년 8.6% 이후 최대치)하였으며, 소비자물가도 전년대비 4.0% 상승('08년 4.7% 이후 최대치) 하였다.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P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GDP)	5.1	2.3	0.3	6.2	3.6
국내총소득(GDI)	4.8	△1.2	1.9	6.0	1.1
수출동향 (억달러, %)					
수출	3,714.9	4,220.1	3,635.3	4,663.8	5,565.1
(증감률)	(14.1)	(13.6)	(△13.9)	(28.3)	(19.3)
수입	3,568.5	4,352.7	3,230.8	4,252.1	5,243.8
(증감률)	(15.3)	(22.0)	(△25.8)	(31.6)	(23.3)
무역수지	146.4	△132.7	404.5	411.7	321.4
고용동향 (천명, %)					
경제활동인구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취업자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고용률)	(59.8)	(59.5)	(58.6)	(58.7)	(59.1)
실업자	783	769	889	920	855
(실업률)	(3.2)	(3.2)	(3.6)	(3.7)	(3.4)
물가동향 (2005=100, %)					
소비자물가지수	104.8	109.7	112.8	116.1	120.7
(전년대비)	(2.5)	(4.7)	(2.8)	(2.9)	(4.0)
생산자물가지수	102.3	111.1	110.9	115.1	122.1
(전년대비)	(1.4)	(8.6)	(△0.2)	(3.8)	(6.1)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중소기업동향

2011년 상반기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유럽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 설비투자가 위축되며 실물경기가 위축되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기가 더욱 빠르게 위축되었다.

2011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1.1월 83.6%로 8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3/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제조업 가동률 지수 및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도 2011.6월 19.9%까지 상승('03.6월 20.8% 이후 최대)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연간 신설법인 수는 65,110개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으며, '08년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던 신설법인수는 지속적인 수출호조세와 창업지원정책강화 및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재정위기 확대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소기업 자금여건도 다소 악화되어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6.00%로 전년대비 0.32%p 상승하였다.

■ 중소기업관련 주요지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소제조업 생산동향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2005=100 기준)		112.7	113.1	107.2	122.8	128.1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중소제조업(%)		17.3	13.9	15.4	16.9	16.8
- 중화학		19.4	16.2	17.2	19.2	19.0
- 경공업		14.5	10.8	12.8	13.1	13.4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80.3	77.6	74.4	80.9	80.0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71.0	69.3	68.3	72.1	72.2
제조업 가동률지수 (2005=100 기준)		100.4	97.2	93.8	101.7	100.5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A) (개)		53,483	50,855	56,830	60,312	65,110
부도법인 수(B) (개)		1,507	1,886	1,364	1,142	967
창업배율(A/B) (%)		35.5	27.0	41.7	52.8	67.3
부도업체 수 (개)		2,294	2,735	1,998	1,570	1,359
어음부도율 (%)		0.02	0.03	0.03	0.03	0.02
금융동향						
대출잔액 (원화대출, 연말, 조원)	중소기업	355.3	400.3	430.7	429.7	441.4
	대기업	35.7	59.4	75.5	87.3	115.1
대출금리 (연 %)	중소기업	6.72	7.31	5.65	5.68	6.00
	대기업	6.09	6.79	5.61	5.25	5.50
대출연체율 (연말, %)	중소기업	1.00	1.70	1.09	1.30	1.34
	대기업	0.37	0.34	0.35	0.35	0.25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육성시책

기본방향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정책비전을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으로 세우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추진
방향

- ◆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간 동반성장 추진
- ◆ 창업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
속
추
진
과
제

1.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 촉진

- ①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②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
- ③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활성화
- ④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

2.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① 기업가정신 확산
-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 선진화
- ③ 녹색 등 글로벌 전문 중소기업 육성
- ④ 지식서비스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
- 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현장인력 양성

3.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촉진

- ① 미래 성장유망분야 R&D 투자 확대
- ② 산학연 기술협력 촉진
- ③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4.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조성

- ①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 ②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기반 강화
- ③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촉진
- ④ 벤처기업 성장 및 구조조정 원활화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① 소상공인 업종·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②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자생력 제고
- ③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 ④ 여성·장애인 기업 경영활동 촉진

6.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및 애로 해소

추진실적

동일본 대지진,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하에서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 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1) 동반성장 여건 조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 하도급법 등 상생관련 법령개정,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유출방지 대책수립, 세제지원 등을 실시하여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세탁비누, LED등, 두부 등 총 4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동반성장위원회) 하였으며, 대·중소 MRO 업체간 사업조정협약 체결(공구·베어링분야) 및 중소 MRO 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마련(판로법, '11.7) 하였다. 또한, 대형마트·eSSM의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법('10.11) 및 상생법('10.12) 시행을 위해 사업조정 시행지침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지역을 확대(전통시장 인근 500m → 1km 이내)하고 일몰기간(3년 → 5년)도 연장(유통법 개정, '11.6)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기여하였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였으며 중소기업간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하도급법 개정, '11.3)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탈취·유용 행위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도급법 개정, '11.3)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유출 방지대책'('11.8)을 수립하여 대기업 등의 부당한 인력채용 행위를 방지하고, 기술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하고 2,3차 협력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담보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창업대책을 수립('11.4)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고졸채용 확대, 청년인턴제, 우수 기능인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민·관 공동으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운영 및 성공 벤처기업인(250명)으로 YES 리더스 클럽을 구성하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등을 실시하는 등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한

창업저변을 확대하였다.

기술지식창업 활성화 및 시니어 창취업 촉진을 위해 지역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선정(15개)하여 창업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학내 기술창업을 활성화 하였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예비창업자(214명)에게 창업교육, 준비공간, R&D장비, 인력, 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실시하여 '11년 191억원의 매출 및 61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1.4) 및 시행령('11.9)을 제정하여 지식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기반도 마련하였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성장촉진 지원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창업자금, 1.4조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창업초기 70% 등) 등을 통한 창업초기기업 전용펀드 결성(840억원) 및 투자를 확대하였다.

고졸채용 확산에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립마이스터고와 혁신형기업간 채용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중소기업과의 산학협약을 확대하였으며, 고졸자의 병역부담 완화, 공공기관 등의 고졸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제 연장('15년) 및 특성화고 졸업자 위주로 개편(병무청) 하였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10, 2.9만명 → '11, 3.2만명)하고 수출 및 디자인 등 특화된 분야의 청년인턴제를 운영(고용부) 하였다. 중소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확대(4만명, 고용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였다.

3)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

2011년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투자를 확대(('10) 12,904억원 → ('11) 13,080억원)하고, 전체 R&D 중 중소기업 전용 R&D 규모도 확대(('10) 5,607억원 → ('11) 6,288억원)하였다. R&D 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중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에 관한 MOU를 체결('11.8) 하였으며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R&D 지원(('10) 280억원, 106개업체→('11) 325억원, 120개 업체)도 강화하고,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연구소 설립규제를 완화(교과부)하여 설립기간을 단축(30일→7일)하였다.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7대 전략산업(녹색·신성장동력, 뿌리 및 부품소재, 지역전략연고산업 등)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하였으며, 정책자금 구조를 창업 기술개발기업 위주로 개편('10, 13,380억원 → '11, 16,580억원)하고 직접 신용대출을 확대하였으며 창업수출 녹색성장(27.3조원) 및 고용창출기업(6.5조원) 등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였다.

공공구매 활성화 등 중소기업 판로 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10) 64.1% → ('11) 67.4%) 및 공공구매 실적점검 대상기관(('10) 204개 → ('11) 282개)을 확대 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성능보험 가입 기술개발제품 → 전체 기술개발

제품) 확대 및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시 중소기업 납품업체로부터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판로법 개정, '11.3)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채널을 개국 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흥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신흥시장과의 중소기업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인도 최대 B2B 무역사이트인 인디아 마트내 한국 중소기업관 개설('11.3), 재외공관을 활용한 비즈니스 외교, 법률자문,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였다.

4)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전통시장 가는날 운영,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나들가게 육성 및 햇살론 미소금융 등으로 골목상권의 온기회복에 기여하였다.

소규모 슈퍼 점주의 인식 개선, 시설현대화 및 조직화 등을 통해 골목슈퍼를 경쟁력을 갖춘 나들가게로 육성(5,300개) 하였으며,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중소유통업을 조직화하여 구매력을 확보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물류인프라를 지원하였다.

쇼핑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의 온기회복 여건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시장('11.8, 993개) 및 취급은행('11.8, 9개) 등을 확대하였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매월 마지막 토요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공공부문(126개 기관), 민간부문(기업·단체 189개, 대학 48개))'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였다. 주차장 수, 아케이드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1,600억원)하고 시장인근 주변도로에 주·정차 허용 확대('10, 137곳 → '11.8, 219곳) 하였다.

해외의 유망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300개)하여 보급하고,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업 정보 제공 강화 및 '상권 로드뷰' 제공, 전용콜센터 설치 등 상권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유망업종으로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교육 및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였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를 신설 및 보증 지원(금융위 등),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가입창구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창업교육 실시(10만명) 및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e-러닝 교육 강화, 소상공인 경영활동시 발생하는 법률소송을 무료로 지원(250건)하는 등 자금,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혁신을 지원하였다.

201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2011년 사업추진방향 및 실적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정보제공

2011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011년도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진공이 2011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정책기조에 대응,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 목표로 23,581개 업체에 3조 4,0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맞추어 상반기에 예산의 66.8%를 집행하여 중소기업 경영환경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4,000억원을 3,643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전환지원자금 1,475억원을 250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580억원을 1,000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 및 기술기반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투·융자의 특징을 혼합한 직접금융 형태인 성장공유형방식으로 376억원을 지원하여 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성장이익 공유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시설투자 위축을 극복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증액한 2,400억원을 1,252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은 450억원 증액한 4,450억원을 15,882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였다. 또,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시설투자 위축 우려로 중소기업 시설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800억원 증액한 8,620억원을 1,554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융자지원대상을 정비해서 전략산업 영위기업과 신규기업 지원을 강화하였고, 고용창출기업 금리우대지원을 통해 1,165개 업체, 7,27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냈다. 또, R&D기반 클러스터, 노후 공업지구 리모델링 등 협동화사업을 1,818억원,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실패기업 재창업지원자금을 124억원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병원의 응급시스템과 같은 긴급·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균처리기간을 3.4일(일반자금 15~20일)로 단축하는 등 총 303개 업체, 542억원의 앰블런스맨 지원실적을 달성하였다.

둘째,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사업은 진단 및 정보제공 위주의 기존 구조고도화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진단결과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연계지원 이행을 통해 문제원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문제해결형 지원시스템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One Stop 연계지원을 위해, 진단과 동시에 기업등급을 산출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단·평가 통합모델을 개발하여 346개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990억원을 시범 지원하였고,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서도 총 4,965건의 시책사업을 연계지원하였다. 또한,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225명의 해외 고급기술자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자금 16억원,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셋째, 연수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 77,538명을 대상으로 기술, 품질, 경영, IT, 디지털, 기업 혁신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 청년층이 창업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 지원함으로써 청년CEO 212명 양성, 창업률 100%, 고용창출 610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사업은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사업에 4,865개 업체가 참여하여 1억 5,6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외국어홈페이지를 3,588개 제작하였고, 31,051개 기업정보와 131,189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으며,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 거래 네트워크망을 통해 2011년도에 3,550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을 603개 발굴하고, 행복한세상 백화점 내 전용매장을 설치해서 413개 업체를 입점 시키는 등 내수마케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외산업협력사업은 해외협력알선 695건, 산업협력사절단 10회,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22회, 개성공단 컨설팅 126MD, 남북경협 관련 자료발간 31건 등 21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에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경영지원, 인력, 판로·수출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2011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추진실적	
	사업량	실적
정책자금융자		3,401,530
창업기업지원	3,643개 업체	1,400,000
사업전환	250개 업체	147,500
개발기술사업화	1,000개 업체	257,999
신성장기반지원	1,554개 업체	861,949
긴급경영안정	1,252개 업체	289,082
소상공인지원	15,882개 업체	445,000
자본지출		52,618
모태조합출자	1조합	32,000
전산시스템구축		1,444
연수시설및장비구축		6,233
글로벌리더십연수원건립		935
중진공 본사 지방이전		12,006
시책지원		71,740
연수사업	77,538명	13,809
간행물발간	8,439회원	786
조사연구		3,498
생산지식거래알선	603개 업체	228
해외산업협력지원		2,125
APEC혁신센터		330
수출인큐베이터	221개 업체	7,449
국내수출지원	4,630개 업체	1,774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2,371개 업체	2,791
사업전환인프라구축		1,126
정책자금안정화지원		30,000
온라인수출지원	2,294개 업체	2,581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225명	3,584
레저장비산업발전	9과제	1,659
계		3,525,888

* 긴급경영안정은 수출금융지원사업의 회전대출을 포함한 실적

정책자금 융자

정책자금 융자사업 개요

2011년에는 '10년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책자금 융자 예산은 상반기에 예산의 66.8%를 조기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전략산업에 25,911억원과 시설자금에 19,3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13,368억원을 집행하였다.

중소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촉진을 위해 고용창출기업을 우대지원하여 1,165개 업체를 통해 7,27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 8,597억원을 지원하였고 소기업을 대상으로 25,473억원을 집행하였다.

글로벌 금융환경 급변 및 일본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앰블런스맨 제도를 시행하여 303개 업체에 54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재창업자금 제도개선 노력으로 재창업자금 집행실적이 2010년 15억원에서 2011년 124억원으로 대폭 증대되어 실패중소기업의 신용회복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재기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의 확대노력에 따라,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으로 604억원을 집행하였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방식으로 376억원을 집행하는 등 미래 성장가치 중심의 다양한 투융자복합 지원방식이 마련되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1998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2011년까지 26,237개사에 8조 5,911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1년도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업체의 증가추세 등으로 인해 14,0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전액 집행하였다.

■ 2011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400,000	5,861	3,057,319	3,846	1,693,621	3,643	1,400,000

창업자금 지원업체의 업력을 살펴보면, 설립 1년 미만 업체에 4,556억원(32.5%), 설립 3년 미만 업체에 3,978억원(28.4%), 설립 5년 미만 업체에 3,020억원(21.6%), 업력 7년 미만 업체에 2,446억원(17.5%)이 지원되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지원이라는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 2011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1,682	1,044,372	1,053	565,638	989	455,624
3년미만	1,976	943,129	1,301	509,382	1,212	397,766
5년미만	1,297	634,590	856	357,983	813	302,014
7년미만	906	435,228	636	260,618	629	244,596
계	5,861	3,057,319	3,846	1,693,621	3,643	1,400,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에 96.5%(13,516억원)가 지원되었으며, 특히, 2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80.7%(11,296억원)로 경영자원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지원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금 액	비 율	
			업체수	금액
5인이하	1,553	512,850	42.6	36.6
20인이하	1,567	616,782	43.0	44.1
50인이하	448	221,947	12.3	15.8
100인이하	57	36,258	1.6	2.6
300인이하	18	12,163	0.5	0.9
계	3,643	1,400,000	100.0	100.0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원비중이 82.6%(11,565억원)이며, 유통업 및 기타 업종이 17.4%(2,435억원)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업종이 45.5%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15.6%, 잡화음식료 11.1%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183	1,263,284	1,514	751,858	1,447	636,651	45.5
전기전자	731	319,485	445	166,016	440	146,858	10.5
섬유화학	807	499,157	563	280,159	521	217,744	15.6
잡화음식료	634	422,939	408	206,402	379	155,285	11.1
기타	1,506	552,454	916	289,186	856	243,462	17.4
계	5,861	3,057,319	3,846	1,693,621	3,643	1,400,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8.3%(2,564억원), 경북에 13.4%(1,879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69.9%(9,792억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812	304,130	463	134,798	422	111,374	8.0
인천	223	90,197	123	56,001	125	53,030	3.8
경기	1,229	533,604	793	298,852	742	256,445	18.3
부산	356	168,693	184	78,751	180	69,576	5.0
대구	285	128,677	210	51,856	198	44,554	3.2
광주	145	76,629	116	60,628	112	55,087	3.9
대전	181	63,894	120	39,672	120	36,464	2.6
울산	153	96,143	101	51,816	92	37,567	2.7
강원	172	94,348	132	47,999	134	43,463	3.1
충북	339	231,966	244	126,804	225	95,251	6.8
충남	263	167,387	169	90,209	167	76,009	5.4
전북	210	147,811	147	99,833	139	74,597	5.3
전남	290	174,926	216	109,190	206	84,429	6.0
경북	549	360,480	422	234,021	404	187,945	13.4
경남	609	406,124	380	205,371	352	165,592	11.8
제주	45	12,310	26	7,820	25	8,618	0.6
계	5,861	3,057,319	3,846	1,693,621	3,643	1,400,00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직접대출 지원액이 54.4%(7,616억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이 41.2%(3,141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638,412	314,146	147,952	299,490	761,588	1,400,000

3) 제도개선사항

‘11년에는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비율을 ‘10년 44.5%에서 ‘11년 54.5%로 확대하였다.

재창업자금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0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0개 업체에 124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1년도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노력으로 전년(15개업체, 15억원)대비 8.3배가량 집행실적이 제고되었으며,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2011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0	175	56,885	90	13,668	90	12,419

재창업자금의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직접·신용대출 비중이 83.5%로 집행되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0,369	-	2,050	-	12,419

3) 제도개선사항

2011년에는 재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요건 확대, 평가방식 개선, 지원조건 완화 등 4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신청 및 승인률 제고와 지원기업수 증가를 도모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11년도에는 1,000개사에 2,58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11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58,000	1,430	516,953	1,036	280,638	1,000	257,999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081억원(41.9%), 전기·전자 549억원(21.3%), 섬유·화학 519억원(20.1%)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83.3%인 2,149억원이 지원되었다.

■ 2011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 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533	199,753	402	117,520	389	108,060	41.9
전기전자	339	112,798	243	57,004	235	54,896	21.3
섬유화학	233	96,461	182	57,963	179	51,901	20.1
잡화음식료	109	41,852	74	20,597	72	17,182	6.7
기타	216	66,089	135	27,554	125	25,960	10.1
합계	1,430	516,953	1,036	280,638	1,000	257,999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760억원(29.5%), 서울에 256억원(9.9%)이 지원되는 등 수도권에 총 1,179억원(45.7%), 수도권외 지역에 1,401억원(54.3%)이 지원되었다.

■ 201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257	86,111	141	28,910	129	25,630	9.9
인천	76	36,523	50	15,345	52	16,253	6.3
경기	415	136,778	315	83,227	302	76,037	29.5
부산	53	22,108	38	11,611	37	9,443	3.7
대구	71	25,699	51	11,099	48	10,280	4.0
광주	31	12,643	23	8,224	23	7,789	3.0
대전	77	29,105	52	13,895	54	14,290	5.5
울산	16	7,680	19	6,615	19	5,920	2.3
강원	31	9,670	24	5,627	24	5,350	2.1
충북	70	23,744	57	13,350	56	13,200	5.1
충남	58	21,775	51	15,743	49	13,871	5.4
전북	44	19,752	43	17,170	40	14,878	5.8
전남	39	11,960	27	7,324	27	7,016	2.7
경북	84	32,287	61	17,187	60	16,000	6.2
경남	98	39,168	76	24,211	72	20,943	8.1
제주	10	1,950	8	1,100	8	1,100	0.4
합계	1,430	516,953	1,036	280,638	1,000	257,999	100

기술유형별로는 Inno-biz 업체에 대한 지원이 1,134억원(44.0%), 특허·실용신안 등록기술에 대한 지원이 713억원(27.6%)으로 Inno-biz 업체 보유기술과 특허등록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 2011년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금 액	비 율	
			업체수	금 액
정부시행기술지원사업	25	5,910	2.5	2.3
특허/실용신안	328	71,284	32.8	27.6
기술이전	4	1,661	0.4	0.6
Inno-biz	410	113,402	41.0	44.0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4	790	0.4	0.3
기업부설연구소	106	28,907	10.6	11.2
기술혁신개발사업	119	34,949	11.9	13.5
기타	4	1,097	0.4	0.4
계	1,000	257,999	100.0	100.0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기업에 1,952억원(75.7%)이 지원됨으로써 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1,047억원 (40.6%)에 이르고 있다.

■ 2011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금 액	비 율	
			업체수	금 액
5인이하	110	14,863	11.0	5.8
6 ~ 20인이하	427	89,800	42.7	34.8
21 ~ 50인이하	313	90,498	31.3	35.1
51 ~ 100인이하	120	45,934	12.0	17.8
101~ 300인이하	30	16,904	3.0	6.6
300인초과	-	-	-	-
계	1,000	257,999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1,834억원, 71.1%)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 계	
담보별	49,496	183,371	15,733	9,400	208,503	257,999

3) 제도개선사항

2011년에는 자체 지역별 산업분포, 이노비즈업체수 및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업체수 등을 감안 하여 지역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 주력 기업들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는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신성장기반자금의 예산은 8,620억으로 예산 대비 111.6%인 9,619억원을 지원결정하고 8,619억원을 집행하였다.

■ 2011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기반	700,000	1,757	1,202,934	1,363	797,520	1,321	700,000
융복합	162,000	257	446,808	234	164,427	233	161,949
계	862,000	2,014	1,649,742	1,597	961,947	1,554	861,949

가. 신성장기반

1)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가동비, 기술개발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1년도에는 1,321개사에 7,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2011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00,000	1,757	1,202,934	1,363	797,520	1,321	700,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1.6%,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8.4%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47.0%로 가장 높고, 잡화음 식료 14.2%, 섬유화학 12.4%, 전기전자 7.9% 순이었다.

■ 2011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782	573,465	619	361,849	629	329,315	47.0
전기전자	112	92,594	73	57,558	79	55,567	7.9
섬유화학	251	174,454	191	110,966	174	86,769	12.4
잡화음식료	206	143,009	169	107,205	157	99,437	14.2
기타	406	219,412	311	159,942	282	128,912	18.4
계	1,757	1,202,934	1,363	797,520	1,321	700,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0.7%(1,446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2,441억원 (34.9%), 수도권 이외 지역이 4,559억원(65.1%)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 201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청		지원결정		대 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208	123,313	137	75,483	126	69,666	10.0
인천	73	48,149	54	31,728	58	29,908	4.3
경기	446	266,788	349	183,696	316	144,557	20.7
부산	99	68,991	87	54,474	89	47,422	6.8
대구	142	85,075	111	38,295	93	32,102	4.6
광주	63	41,428	56	33,320	58	29,116	4.2
대전	30	29,246	20	23,357	22	22,308	3.2
울산	28	21,923	23	15,290	29	20,919	3.0
강원	28	20,730	28	18,606	21	12,130	1.7
충북	82	65,199	67	45,716	60	38,557	5.5
충남	85	89,411	68	64,871	72	53,307	7.6
전북	47	34,158	43	27,364	50	31,003	4.4
전남	56	33,731	42	23,600	40	22,065	3.2
경북	145	112,553	114	68,089	126	67,412	9.6
경남	212	157,009	152	89,621	149	76,251	10.9
제주	13	5,230	12	4,010	12	3,277	0.5
합계	1,757	1,202,934	1,363	797,520	1,321	700,000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신성장기반자금 예산의 77.0%(6,638 억원)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 2011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비 율	금 액	비 율
5인이하	244	15.7	101,658	11.8
6 ~ 20인이하	562	36.2	277,558	32.2
21 ~ 50인이하	482	31.0	284,610	33.0
51 ~ 100인이하	194	12.5	144,413	16.8
101~ 300인이하	72	4.6	53,710	6.2
계	1,554	100.0	861,949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신성장기반자금 총 8,619억원의 지원액 중 직접대출이 33.3%(2,868 억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36.2%(1,039억원), 보증서 대출이 22.3%(639억원), 부동산 대출이 41.5%(1,189억원)로 나타났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 계	
담보별	575,150	103,921	63,938	118,940	286,799	861,949

3) 제도개선사항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일반산업 위주의 자금지원에서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목표 80%)하는 체제로 개선하였으며, 지역본·지부 하부조직을 산업별로 개편하여 업종별 전문가 제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제외한 일반 업종의 사업장 확보자금은 지원제외 하고, 사업장 건축자금 및 시설도입 자금 위주로 정책자금의 지원용도를 조정하였다. 아울러 접수 방식을 개선하여 자금별 접수일자(신성장기반자금 매월 6~10일)를 구분하였으며, 처리기간을 30일 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융복합(협동화)사업

1) 사업개요

융복합(협동화)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 생산·실험연구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며, 상호 경영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1년 52개 사업장(3,270억원)을 신규로 승인하였으며, 계속 및 신규승인 사업장 78개를 대상으로 총 1,818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100% 집행을 달성하였다.

협동화 유형별로는 집단화가 1,550억원으로 85.3%, 공동화가 126억원으로 6.9%, 협업화가 142억원으로 7.8%의 수준으로 집행되었다.

■ 201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승인		지원		승인		지원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서울	8	14,882	4	4,670	5	5,800	5	11,736
부산	3	19,403	1	10,415	2	38,163	10	9,478
대구	5	7,965	5	6,035	3	44,552	5	31,840
인천	3	9,940	6	7,543	6	17,250	3	9,100
광주	-	-	3	3,270	1	7,373	2	6,928
대전	2	5,101	5	8,183	4	26,473	6	7,577
울산	2	12,397	3	10,567	1	3,295	4	9,035
경기	13	82,249	32	36,902	13	101,533	19	62,905
강원	2	15,823	4	11,101	4	5,370	7	3,180
충북	-	-	3	2,855	3	3,400	1	600
충남	1	3,524	6	12,000	3	25,404	5	7,601
전북	2	16,350	4	8,150	1	5,950	2	7,891
전남	-	-	1	1,000	1	4,717	1	1,170
경북	2	8,022	4	3,874	2	17,513	3	8,108
경남	4	17,669	9	13,234	2	19,908	4	4,360
제주	-	-	1	200	1	300	1	300
계	47	213,325	91	139,999	52	327,001	78	181,809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1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2,200억원(일반경영안정사업 1,000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 700억원, 재해복구지원사업 200억원,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3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구제역, AI, 리비아 등 중동소요사태 및 일본 지진피해기업 등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태풍 및 수도권 집중 호우에 따른 재해자금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2,400억원을(일반경영안정사업 1,000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 762억원, 재해복구지원사업 436억원,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202억원) 전액 집행하였다.

■ 2011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경영안정사업	100,000	839	218,802	582	103,405	565	100,000
수출금융지원사업	76,205	279	101,323	327	76,205	327	76,205 (125,287)
재해복구지원사업	43,604	284	62,265	267	44,579	259	43,604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20,191	132	38,024	101	20,317	101	20,191
계	240,000	1,534	420,414	1,277	244,506	1,252	240,000 (289,082)

주) 괄호안 수치는 수출금융지원사업의 회전대출을 포함한 실적

가. 일반경영안정사업

1) 사업추진현황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50억원 미만 기업이 37.4%(374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71.1%(711억원)를 집행하였다.

■ 2011년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5억원미만	82	13,990	38	4,079	36	3,829	3.8
5 ~ 10억원미만	76	12,085	51	5,782	47	4,942	4.9
10 ~ 50억원미만	369	91,038	256	40,129	245	37,371	37.4
50 ~ 100억원미만	166	49,770	123	25,465	122	24,998	25.0
100 ~ 300억원미만	119	38,909	91	20,159	91	20,679	20.7
300억원이상	27	13,010	23	7,791	24	8,181	8.2
계	839	218,802	582	103,405	565	100,000	100.0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87.1%로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구입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금속 33.5%, 잡화음식료 23.8%, 섬유화공 21.0% 순으로 지원되었다.

■ 2011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67	69,910	194	34,879	189	33,514	33.5
전기전자	64	17,430	44	9,019	43	8,839	8.8
섬유화공	156	43,600	114	20,946	111	21,026	21.0
잡화음식료	209	53,477	148	25,821	141	23,751	23.8
기타	143	34,385	82	12,740	81	12,870	12.9
계	839	218,802	582	103,405	565	100,000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85.3%(482개) 총 지원 금액의 79.5%(795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업체수	금 액	비 율	
			업체수	금 액
5인이하	71	8,058	12.6	8.1
6 ~ 20인이하	264	42,029	46.7	42.0
21 ~ 50인이하	147	29,394	26.0	29.4
51 ~ 100인이하	64	15,069	11.3	15.1
101~ 300인이하	19	5,450	3.4	5.5
계	565	100,000	1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07억원(20.7%), 경북 113억원(11.3%), 경남 91억원(9.1%)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336억원(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78	21,940	49	8,570	46	8,270	8.3
인천	42	8,360	26	4,600	26	4,600	4.6
경기	182	43,600	128	21,480	124	20,730	20.7
부산	63	19,823	35	6,300	34	6,100	6.1
대구	39	11,650	29	6,180	27	5,380	5.4
광주	28	6,400	21	3,266	20	3,166	3.2
대전	16	3,330	9	1,380	9	1,393	1.4
울산	22	8,550	19	5,630	19	5,400	5.4
강원	17	3,300	15	1,800	15	1,800	1.8
충북	46	12,150	28	3,860	27	3,800	3.8
충남	61	16,690	43	7,587	43	8,307	8.3
전북	36	9,409	27	4,320	26	4,100	4.1
전남	45	11,870	32	6,162	31	5,534	5.5
경북	79	20,240	62	11,650	60	11,320	11.3
경남	72	19,470	50	9,620	49	9,100	9.1
제주	13	2,020	9	1,000	9	1,000	1.0
계	839	218,802	582	103,405	565	100,000	1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직접대출 지원액이 792억원(79.2%)으로 직접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23억원(91.4%), 보증서 대출이 32억원(4.0%), 부동산 대출이 36억원(4.6%)으로 나타나 직접 신용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20,830	72,340	3,200	3,630	79,170	100,000

2) 제도개선사항

일반경영안정지원사업은 시중의 자금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역본부의 자금수요를 조사하여, 설 · 추석 등 시중의 자금수요가 급증할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수출금융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수출금융지원사업은 327개사에 1,253억원을 회전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애로 및 무역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 2011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 산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6,200	279	101,323	327	76,205	327	125,287 ^{주)}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의 회전대출을 포함한 실적

지원 방식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L/C 위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차별화하여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T/T, D/P 등 무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였다. 또한 거래금액이 작고 이용회수가 잦은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이용편의를 위해 포괄금융(93.1%)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지원방식별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L/C		D/A·D/P		Local L/C		T/T·O/A		구매확인서		포괄금융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4	2,632	-	-	-	-	21	4,880	5	1,100	450	116,675	490	125,287
2.9	2.1	-	-	-	-	4.3	3.9	1.0	0.9	91.8	93.1	1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322억원(25.7%), 인천 83억원(6.6%), 서울 98억원(7.8%) 등 수도권에서 503억원(40.1%)을 지원하였으며, 경남지역에 12.0%인 150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750억원(59.9%)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35	14,930	24	5,080	33	9,775	7.8
인천	17	6,125	16	4,360	24	8,286	6.6
경기	79	29,925	63	14,285	91	32,204	25.7
부산	17	6,500	9	1,830	10	3,110	2.5
대구	12	3,500	11	2,450	14	5,450	4.4
광주	3	1,100	3	649	8	2,134	1.7
대전	6	2,230	4	1,270	9	6,000	4.8
울산	6	3,700	6	1,940	8	3,690	2.9
강원	6	1,350	6	1,050	9	3,250	2.6
충북	12	4,920	9	2,720	13	5,420	4.3
충남	7	3,100	8	2,910	11	6,781	5.4
전북	10	2,780	9	2,320	18	5,801	4.6
전남	6	1,483	4	883	6	2,876	2.3
경북	21	6,200	16	4,500	25	14,610	11.7
경남	40	12,780	35	8,065	45	14,995	12.0
제주	2	700	2	400	3	905	0.7
계	279	101,323	225	54,712	327	125,287	100.0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금액이 많음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대출이 1,166억원(93.0%), 보증서 대출이 87억원(7.0%)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접대출		
	신용	보증서	계
담보별	116,577	8,710	125,287

2) 제도개선사항

수출금융 5년초과 이용기업에 대해 졸업제를 도입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편중 방지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였다.

다. 재해복구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연중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폭설(23개업체, 47억원)과 여름철 집중호우(226개업체, 378억원), 태풍(10개업체, 10억원)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기업자금 신청이 증가하였으며 259개사 436억원을 지원하였다.

■ 2011년 재해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연간계획	신 청		추 천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태풍	43,604	12	1,222	9	796	10	1,061
폭설		27	5,552	24	4,850	23	4,730
폭우		244	55,291	234	38,933	226	37,813
계	43,604	283	62,065	267	44,579	259	43,604

전체지원액 중 65.9%인 287억원을 직접대출로, 직접대출의 89.5%를 신용으로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소요비용에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4,874	25,705	3,025	-	28,730	43,604

2) 제도개선사항

재해자금에 업무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앰블런스맨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한 복구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라. 일시적경영애로지원사업

1) 사업추진현황

구제역 및 AI확산에 따른 육류가공 등 관련 기업(14업체, 25억원), 일본지진으로 인한 수출관련 피해기업 및 부품소재 조달 애로 기업(37업체, 64억원)을 신청대상에 포함하여 총 101개사에 202억원을 지원하였다.

■ 2011년 기업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연간계획	신 청		추 천		대 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구제역 또는 AI	20,191	15	3,950	14	2,540	14	2,540
일본지진		41	10,550	37	6,376	37	6,370
일반기업		76	23,524	50	11,401	50	11,281
계	20,191	132	38,024	101	20,317	101	20,191

전체지원액 중 91.2%인 184억원을 직접대출로, 직접대출의 96.9%를 신용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급격한 자금경색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상황 속에서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 2011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770	17,861	60	500	18,421	20,191

2) 제도개선사항

일시적경영애로자금에 업무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앰블런스맨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사업전환지원사업

가. 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유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 조정지원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사업 개시한 이후 2011년까지 총 6,965억원을 집행하였다

2011년 사업전환지원사업은 17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였다. 사업전환자금은 1,473억원으로 편성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대해 융자예산 대비 131.3%인 1,934억원을 추천하였으며, 예산 1,473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융자액 1,473억원 중 45.1%인 664억원은 직접대출하였다.

■ 2011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계획(A)	실적(B)	집행률(B/A)
사업전환계획 승인	150	179	119.3
자금지원결정	147,300	193,416	131.3
자 금 대 여	147,300	147,300	100.0
직 접 대 출	58,650	66,380	113.2

사업전환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79개중 90.5%인 162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품목추가 6.1%(11개), 업종전환 3.4%(6개)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의 생산기반 및 기술을 응용할 수 있고 리스크 부담도 비교적 덜한 업종추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규승인		자금지원			
	업체수	비중	지원결정		대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업종전환	6	3.4	9,025	4.7	8,012	5.4
업종추가	162	90.5	172,570	89.2	128,094	87.0
품목추가	11	6.1	11,821	6.1	11,194	7.6
계	179	100.0	193,416	100.0	147,300	100.0

나. 무역조정지원사업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융자 및 상담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무역조정지원센터는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1년까지 7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총 17.5억원의 융자와 4건(64백만원)의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신규지정은 없었으나, 기존에 지정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총 2억원의 융자와 1건(16백만원 지원)의 컨설팅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 대비하여 '10년 구축 완료한 FTA모니터링시스템을 최신화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EU와 FTA로 인한 무역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25개의 무역조정 후보기업을 선정·방문하는 등 무역피해기업 조기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였다.

두차례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간의 사업부진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엄격한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요건을 매출 또는 생산 25% 이상 감소에서 5~10% 이상 감소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상담지원의 경우 FTA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무역조정지원 포털사이트(www.taa.go.kr)를 운영중이며, 신문매체 홍보,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도 실시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

1) 사업개요

소상공인지원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소상공인의 창업촉진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 등 18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신청하여 집행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10년 이후에는 소상공인지원자금 내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나들가게로 육성하기 위한 나들가게자금이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11년 소상공인지원자금은 15,882개사에 4,450억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 창업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 소상공인지원자금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예 산(A)	대 여		집행률(B/A)
		업체수	금액(B)	
2001년	3,700	14,313	3,700	100.0
2002년	3,500	10,310	3,185	91.0
2003년	3,500	13,914	3,496	99.9
2004년	3,500	14,756	3,456	98.7
2005년	5,100	19,605	4,642	91.0
2006년	4,552	16,300	4,395	96.6
2007년	3,457	12,449	3,442	99.6
2008년	2,890	8,531	2,672	92.5
2009년	10,967	46,457	10,966	100.0
2010년	3,000	10,582	3,000	100.0
2011년	4,450	15,882	4,450	100.0
계	48,616	183,099	47,404	97.5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여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 추진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징구) - 건강진단 신청서에 애로분야 표기 및 상담
진단·평가	- 업체방문 / 실태조사 - 진단은 2가지 방식(KPI기반, 진단자기반)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기업평가등급 산출
처 방	-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 및 프레젠테이션) - 사업연계추천서발급 -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치 료	- 연계지원 실시 1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소요금액 사정 후 약정 및 대출실시 2 자금이외 사업 : 사업별 신청, 심사 및 연계지원 3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안내
치 유	- 연계지원 실적집계 및 관리(4대 핵심사업) - 관련지원사업에 연계지원결과를 피드백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2011년도에는 총 2,371개사(리스크관리 1,542건, 경영개선 829건)에 진단을 실시하였고 정책자금 용자 등 총 4,965건의 시책사업을 연계 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진단시스템과 자금평가시스템이 통합된 'Dr. System'을 개발하였고, 건강진단을 기반으로 중진공 핵심사업(정책자금 용자, 컨설팅 등 기술지원, 연수,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사업연계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추진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다. 11년 하반기에는 진단·평가 통합모델 개발을 통한 정책자금 추천서를 활용하여 346개사에 총 990억원을 지원하였다.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이 일본, 미국, 인도, 독립국가연합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225명(수도권 109명(48.5%), 비수도권 116명(51.5%))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국가별로는 기초소재 부품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IT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한 인도, 기초과학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독립국가연합, 임금수준 대비 인적자원이 우수한 중국 출신 인력이 다수(62.7%)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업규모 확대(20억→36억)에 따른 도입인력(147명→225명), 도입분야(기술분야→기술·해외마케팅분야) 확대 등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도입인력이 79명으로 전년 51명 대비 28명 증가하였다.

2011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외국전문인력 도입으로 신제품·신기술 75건 개발, 애로기술해결 205건, 불량률 33.3% 개선, 생산성 30.0% 향상을 달성하였으며, 332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진공은 '11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기술분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구조 고도화, 사업전환, 대·중소동반성장, 해외전문가 과제를 수행하였다.

중진공이 29년간 지도사업을 통해 축적한 컨설팅과 컨설팅사업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지원기업 선정에서부터 점검,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진공 책임하에 수행하여 634건 91억원을 선정·완료 하였다

전담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컨설팅만족도(74점 → 90점)를 높였고, 지원기업의 성과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 인당생산성 : 153백만원 → 185백만원 (21% 증가)
- 생산납기준수율 : 58% → 70% (20% 증가)
- 공정불량률 : 0.04% → 0.03% (25% 감소)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은 낙후지역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메뉴판 형식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에서 소외 가능성이 높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소재기업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2011년도까지 중진공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이 기업 전체 수준 및 애로요인을 파악 후 특성에 적합한 사업지원계획을 기업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메뉴판형식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성장촉진지역 85개 시·군에서 183개사를 추천받아 기업진단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공동 수립하였으며, 업종별 평가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쳐 68개사에 27.2억원을 지원하였다.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글로벌 녹색규제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도록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녹색경영 평가를 통해 우수 Green-Biz 선정 및 차별화된 우대 지원으로 개별 기업의 녹색수준 향상을 장려하였다.

* 녹색경영: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2조]

녹색경영확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녹색경영 저변 확대 및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1년도 사업개편에 맞게 녹색정보포털사이트 '중소기업 그린넷'의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콘텐츠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다. 또한 이러닝 교육과정과 녹색경영기법[LCA(전과정평가), MFCA(물질흐름원가회계), Eco-Design(친환경설계), CMS(화학물질관리서비스)]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 사내 전문가 양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녹색경영 진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향상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고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여 기업 규모별·특성별 경영전략 도출 및 개선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한 진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도(1,000점 기준, 평가내용: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가 '10년도 470점에서 '11년도 520점으로 11% 향상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치의 7%를 넘는 높은 수치였다. 특히 세부항목별 향상도에서 자원·에너지 및 온실가스·환경오염 부분이 19% 향상되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설치 운영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는 『제8차 ASEM 정상회의('08.10)』 VIP 참석 후속조치 이행으로 추진한 아셈 포럼('10.05) 및 ASEM SOM(고위관리회의, '10.7)에서 ASEIC 한국 설치를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
- 제8차 아셈정상회의 의장성명서(10.10월)
- 국격제고 중점 관리과제 5-1-4(10.2월, 국무회의 통과)

ASEIC은 수출 및 무역기술 장벽이 높은 녹색산업에 대하여 ASEM 역내 중소기업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간 역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 제공 및 글로벌 녹색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11년 신규사업으로 아셈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사무국을 설치하고 통합포털사이트(www.aseic.org) 구축, ASEM 회원국 중소기업 대상(4개국, 33개사)으로 Eco-Innovation 컨설팅 실시, 녹색 적정기술 보급(캄보디아), 글로벌 포럼(2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아시아-유럽의 녹색 동반 성장을 위한 다자간 협력촉진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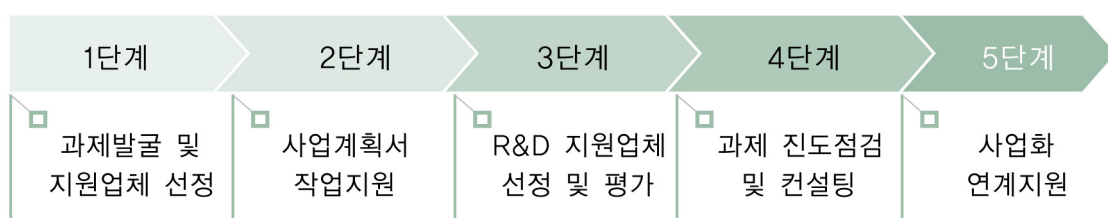
■ 2011년 아셈 중소기업녹색혁신센터 추진실적

세부사업	주요실적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 ASEM 회원국 30여개국 환경규제, 환경보고서 51건, 환경협약 4건 등 정보제공(www.aseic.org)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 4개국 33개업체 지원 (인도네시아 9개, 말레이시아 8개, 태국 8개, 베트남 8개)
녹색적정기술 보급 및 확산	* 태양열조리기 20개, 개량형 소각로 20개 보급 및 기술이전(캄보디아)
GBC설립 및 운영	* 한·인니 정부간 매칭펀드 형태로 추진 * 인큐베이팅 실시(입주규모 13개)
글로벌 포럼	* 서울(11.18), 중국(11.30) 등 2회 실시 * EU 녹색혁신포럼 발표(헬싱키, 10.11)
양방향 맞춤형 정보제공	* 12개국, 1,200개 기관 및 업체 대상 * ASEM 국가들의 에코이노베이션 현황파악 및 ASEIC의 사업전략 및 로드맵 수립 근거자료 확보

첫걸음 부품소재 R&D 지원단 운영 사업

첫걸음부품소재 R&D 지원단 운영 사업은 현행 R&D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현장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R&D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단계부터 과제도출 및 수행, 나아가서 제품개발 성공시 사업화까지 집중 지원하여 부품소재 중소기업 중 성공 유전자를 가진 ‘숨어있는 강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원단 업무절차도



첫걸음부품소재 R&D 지원단은 1단계로 중소기업들이 R&D 수행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시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지원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조사하였다. 한편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단계에서는 과제발굴 단계에서 예비과제로 선정된 기업(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주요성과

추진현황	주요 성과
서류간소화	■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신청서 간소화 (20페이지 내외 → 1페이지) ■ 지원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사업계획의 구체화 지원 (90사)

■ 참고 : '11년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정부 R&D 과제 수행경험이 없으며 창업 1년 이상의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1년 지원업체 보조금	■ 90억
최종선정 과제	■ 주관기관 기준 46개 과제 (2년 : 36개, 3년 : 10개) ■ 업체당 평균 1.96억원 지원

* 과제 최종선정 및 보조금 지급, 협약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수행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 · 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 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자유공모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이 되면 정부보조금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기술개발 시 소요되는 개발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를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20% 이내에서 징수하며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 '12년도 정부보조금 규모 및 지원 내용

'11년 예산	·1,673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이내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신규과제 접수 결과, 자전거 분야 23개 과제, 해양레저장비 분야에 13개 과제가 신청, 총 36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5개 과제(자전거 3개, 해양 2개)를 최종 선정, 신규 지원하였으며 '10년 선정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4개 과제(자전거 2개, 해양 2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4건, 시제품 출시 2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 · 러 중소기업 기술매칭사업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고비용 등으로 기술 도입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원천 기술과 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과 국내 중소기업간 기술매칭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였다.

한러 기술매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협력 저변을 확대하였다. 사절단 파견(1회), 우수기술세미나(1회), 사업설명회(10회) 등 국내 수요발굴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포털사이트(korustech.sbc.or.kr) 구축을 통해 우수 기술 및 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신규 협력기관 : 우크라이나 파톤연구소

또한 한러간 100여 개 파트너 연계를 통해 공동연구, 기술협력, 상업화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기술계약 및 업무협약 6건을 체결하였다.

* 광학, 전자부품, 레이저 기기 등 기술관련 기술상용화, 기술개발, 이전 관련 등

연수

연수사업

연수사업은 기술창업 CEO를 양성하고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및 현장실무 적용능력 배양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현장맞춤, On-line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 본원(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등 3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을 건립하고 있는 등 지난 29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며 2011년 현재 총 108만 여명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1년 77,538명이 연수과정을 수료하여 계획대비 142.3%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그 중 중앙연수원 53,679명(계획대비 148.7%), 지방연수원 23,859명(계획대비 129.7%)의 실적을 각각 달성하였다. 실험·실습을 통한 체험연수와 문제해결형 현장맞춤연수를 더욱 확대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CEO 창업양성연수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 2011년 연수실적

(단위 : 명, %)

과 정	'10년	'11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 공개집합(향상)연수	17,812	12,800	20,502	160.2
- 최고경영자연수	886	485	2,258	465.6
- 기술연수	7,008	6,150	8,276	134.6
- 품질연수	4,366	3,150	4,896	155.4
- 경영연수	5,552	3,015	5,072	168.2
○ 맞춤연수	18,573	10,000	12,399	124.0
○ 원격(인터넷·우편연수)	14,812	11,400	16,844	147.8
○ 국제연수	492	300	335	111.7
○ 조직활성화(한마음)연수	6,556	4,400	5,838	132.7
○ 기업현장연수	17,053	14,100	16,564	117.5
○ 청년창업 양성연수	-	1,500	5,056	337.1
계	75,298	54,500	77,538	142.3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연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 및 취업연계 연수를 신규로 실시하였고, 시장소외영역인 소기업 연수비중(전체 연수대비 32.5%)을 확대하였으며, 모바일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업교육 환경변화에 대처하였다.

연수원 내부직원이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Mystery shopper제도(연수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와 연수종료 후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CS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정에 반영하는 “고객제안카드제도”를 도입·실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밀착된 지역특화과정을 중점적으로 개발·운영 하기 위해서 3개의 지방연수원을 활용,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연수과정운영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시장소외영역인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의 낮은 교육훈련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기업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소기업 연수 비중을 높였고,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소기업 CEO의 교육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지역을 확대(4곳→6곳)하고 주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중앙 및 지방연수원의 교육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신규로 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VOC)를 수집·공유·전파하고, 연수추진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개집합연수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동일 설문을 통한 편차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습성취도 조사”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집약형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창업교육과 코칭, 창업공간 및 1억원 이내 개발비 보조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고(One-Stop 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입교생을 중간 퇴교 시키며(중간퇴교시스템), 마케팅 및 사업화 용자금 등의 후속 연계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청년층 기술창업의 사업화기간 단축과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2011년 최초 수행사업으로 총 1,292명이 입교신청하여 3단계 심사를 통해 이중 241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였다.

이들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연수원(안산)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사무실, 공동지원공간, 공동작업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신제품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제작을 위한 제품개발라인과 개발지원인력을 사관학교에 전진 배치하였다.

특히 1대1 창업코칭을 위해 16명의 외부전문가를 전담교수로 채용하였으며, 도전적 창업가 정신 함양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총 74개 교과목을 147회 개설하여 누적기준 4,183명이 창업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매월 창업활동 보고와 2회에 걸친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29명을 중간 퇴교 시켜 최종 212명이 졸업하였다.(졸업식 개최 2.29일)

■ 제1기 청년창업자 입교 현황('12.2월말)

(단위 : 명, 업체수)

입교자 현황 ('12. 2월말 현재)				운영 특징
신청	선발(A)	퇴교(B)	졸업(A-B)	
1,292	241	29	212*	■ 사업 수행능력평가(2회 중간평가) → 미달자 퇴교 조치

* 졸업 대상자 212명 졸업평가 시행(2.3)

■ 제1기 청년창업자 기술분류별 현황('12.2월말)

(명, %)

구 분	전기 전자	기계 재료	정보 통신	지식 서비스	공예 디자인	환경 에너지	화공 섬유	생명 식품	기타	합계
청년창업자	65	41	36	20	13	10	12	5	10	212
비중	30.7	19.3	17.0	9.4	6.1	4.7	5.7	2.4	4.7	100.0

이들 212명은 1년의 사업기간 중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기술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미국(피츠버그) 및 독일(뉘른베르크),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준대상 2개, 금상 13개, 은상 6개 등 총 43개의 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368건을 출원 및 등록하고 191억원의 매출과 61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201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추진 실적

('12. 1월말 기준)

구분	성과	세부 성과 내역
창업률	100%	• 기창업기업 51업체 + 신규창업 161업체
일자리창출	610명	• 일자리 신규 창출 483명 + 일자리 유지(기존창업기업) 127명
지적재산권 취득	368건	• 특허 253 + 실용신안 3 + 상표등록 56 + 프로그램 56건 등록
벤처기업 인증	29업체	• 기보 기술평가 연계
매출액	191억원	• 입교후 118개업체 신규매출, 수출 17억원(14개업체) 포함
국제대회 수상	43건	•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 : 금상 7, 장려 5, 특별상 1 • 독일 국제발명전시회 : 금상 2, 은상 1, 동상 3, 특별상 9 • 서울 국제발명전시회 : 준대상 2, 금상 4, 은상 5, 동상 2, 특별상 2

또한 2개업체는 엔젤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청년 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이익공유형자금 등 사업화를 위한 정책융자 및 마케팅 연계지원을 통해 졸업기업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졸업평가 성공(우수) 판정 기업 중 별도심사를 통해 15개의 추가지원(1년) 대상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의 사업화기간 단축 및 창업성공률 제고에 노력하였다.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국내수출지원사업

'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를 통해 지자체 등 사업주체로부터 예산을 수탁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선정·파견하고 있다. 2011년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국내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3,250업체이며, 참가기업에 대한 타 사업 연계지원 노력을 통하여 1,458개의 업체가 자금, 연수,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수출 실적을 제고하였다.

■ '11년도 국내수출지원사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사업명	실적		성과		
	횟수	참가 기업수	상담		계약체결
			상담금액 (백만불)	상담 횟수	계약금액 (백만불)
해외전시회	76회	588개	7,444	16,856	33
무역사절단	131회	1,119개	10,243	11,870	42
수출상담회	10회	397개	24,894	1,493	81
계	217회	2,104개	42,581	30,219	156

■ 국내수출지원사업 참가업체 연계지원 실적

('11. 12월말 현재)

사업유형	참가 기업수 (a)	연계지원(업체수)				
		정책 자금(b)	연수 (c)	컨설팅 (d)	계 (e=b+c+d)	연계율 (e/a,%)
해외전시회	588	78	108	54	240	40.8
무역사절단	1,119	195	215	147	557	49.8
수출상담회	397	57	70	41	168	42.3
지역특화	1,146	161	217	115	493	43.0
계	3,250	491	610	357	1,458	44.9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3~4평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임차료의 80% 정부 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컨설팅 및 상담, 현지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분	독자 진출	인큐베이터 이용
○ 소요비용	2억원 내외	약 7~8천만원
· 파견직원 인건비	최소 2명이상	1명
· 마케팅컨설팅 비용	30,000\$ / 년간	-
· 법률및회계자문 비용	별도 소요	-
· 판촉비, 기타 시장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별도 소요	정보공유·노하우 전수로 초기 시행착오 비용 최소화
· 임대료 및 사무집기	16,000불 내외	월20만원 내외

* 1개 입주업체당 연평균 130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2011년 말 현재,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및 BRICs 국가에 설치·운영(11개국 17개소)중에 있다.

■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지역	미 국				독일	중국				일본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UAE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계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도쿄	상파울루	호치민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시티	
입주 규모	23	23	12	18	15	21	14	26	10	13	10	12	10	14	15	11	10	257

2011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4억 7,100만달러이며,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후 수출액 등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사업성고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실적

항 목	입주 전	입주 후	증감률(%)
수출액(수출계약 성사 포함)(천불)	4,371.0	9,415.7	115.4
수출대상국가수(개)	5.9	8.9	50.8
수출상담회수(건)	12.5	26.9	115.2
신규 바이어 발굴건수(건)	5.0	11.3	126.0
연간 매출액(백만원)	10,061.9	11,897.6	18.2
신규바이어 발굴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일)	87.0	58.5	△32.8

* 수출인큐베이터 참여기업 96개 대상(중소기업연구원, '11년 중진공 사업별 성과분석)

Gobizkorea(온라인수출지원) 운영

Gobizkorea(온라인수출지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기업 블로그)를 제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96년부터 시작되었다.

1996년 세계 '정보엑스포' 행사 참가를 계기로 Gobizkorea(웹사이트) 구축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 3,588개의 홈페이지 및 18,551개 상품페이지(영문)와 131,189개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국내 최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로 성장하였다.

1) 수출인프라 구축

Gobizkorea(온라인수출지원)는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단위 : 개, 건)

구 분	~2009년(A)	2010년(B)	2011년		누 계 (A+B+C)
			계획	실적(C)	
홈페이지	3,125	361	100	102	3,588
기업정보	24,906	3,174	1,300	2,971	31,051
상품정보	118,657	6,822	7,000	5,710	131,189

2)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 유명검색엔진을 통해 홍보하는 검색엔진마케팅지원을 2010년부터 신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길을 열어 주었다.

검색엔진마케팅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의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2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16,436천불의 수출성과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기업정보 및 상품정보 DB를 Gobizkorea웹사이트(www.gobizkorea.com)에 등록하여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었으며, 무역인력과 수출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콰이어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해외 바이어의 인콰이어리 회신에 필요한 이메일 작성과 견적서, 거래 제안서 번역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바이어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 2011년 검색엔진마케팅 및 매치메이킹 실적

(단위 : 개, 건, 백만불, %)

구 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검색엔진 마케팅지원업체	120	123	100.2	120	122	101.7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12,000	12,705	105.8	50,000	53,973	107.9
지원업체 수출실적	310	333	107.4	350	359	102.6

3) Gobizkorea 성과 및 발전방향

Gobizkorea(온라인 수출지원)는 참여기업의 자발적인 콘텐츠 유지·보수 등을 통해 항상 살아있는 DB로 유지되고 있고, 해외바이어 접속 건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우수한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원하는 중소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어홈페이지, 상품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와 수출실적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검색엔진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 업무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국가로부터 일평균 12만건의 Gobizkorea 접속과 53,973건의 인콰이어리 접수를 통해 2,273개사가 359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향후 온라인 무역 트렌드 변화에 따라 SNS마케팅 등의 신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신흥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온라인무역관 구축 등 기업 간 전자상거래 기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백만불~2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 수출제품의 브랜드 개발 및 해외진출 전략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한 브랜드 및 컨설팅 사업수행사를 활용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브랜드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신규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브랜드 개발’과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해외시장 로드맵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기업당 4천만원 및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300억 미만은 60%, 300억 이상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1년에는 브랜드 개발 19건, 전략컨설팅 10건 등 총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29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명회 4회 및 세미나 2회 등 브랜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케팅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는 사업 참여기업의 개별 마케팅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11년 지원현황

구분	지원분야	프로젝트수 (건)	지원금액 (천원)	업체수 (개사)
글로벌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발	19	674,000	24
	브랜드 믹스마케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전략컨설팅	10	90,000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외바이어 신청·접수를 받아 중소기업을 발굴 알선하였다.

동 사업은 '06년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대책(안)으로 시작되어, '08~'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0년도 수출실적 30백만불에 이어 '11년도에는 35백만불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중소기업 동반방문, 통역, 무역상담, 추가 제품소싱 등을 후속 지원하는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한하는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현장미팅을 총 107건 지원하여 거래조건, 견적, 벤더등록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지원 하였다.

해외바이어알선 이후 수출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절차별 실무상담(오퍼발행, 협상, 수출계약 체결 등) 등 무역관련 제반의 업무에 대하여 총 320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을 지원하였다.

■ 2011년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바이어알선	719건	521건	1,218건	1,380건
방한바이어 지원	-	-	29건	107건
수출실적	2,345천불	11,413천불	30,203천불	35,501천불
비 고	시범사업 운영		방한바이어 지원 실시	

생산지식거래알선(www.hit500.or.kr)

HIT500이란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을 통해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동 사업은 2011년 603개 중기제품을 대상으로 HIT500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키워드광고, 소비자평가단과 체험단 운영 및 수요처 발굴 등 홍보-입소문마케팅-수요처 발굴의 단계적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당 제품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HIT500사업 지원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8년까지	2010년	2011년	합 계
HIT500(제품선정수)	-	670	603	1,273

동 사이트의 또 다른 축인 중소기업 지식나눔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기술 관련 각종 애로를 해소하고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참여·공유·개방형’ 온라인 문제해결 사이트로서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사용자간 실시간 교류를 통해 경영문제 해결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까지 125,570건의 현장 문제를 사용자간 교류를 통해 해결하였으며, HIT500제품 정보 제공 등 콘텐츠 다양성 및 통합 운영의 시너지 효과로 사용자의 만족도 및 지식교류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 중소기업 지식나눔터 지원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문제해결	44,033	34,464	14,329	32,744	125,570

해외진출지원 및 해외협력기반 조성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지역 내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산업기술협력관 교환을 통한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코리아데스크를 해외 진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투자인허가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설치된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는 2011년에 현지 진출 희망기업의 법인설립, 파트너 알선 등 상담 189건, 방문기업 지원 139명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36건의 현지네트워크 구축을 달성하였고 Export Club 활동을 통해 현지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인니 중소기업간 녹색 협력을 위해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GBC(Green Business Center)를 인도네시아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에 일조하였다.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는 2011년 상담지원 215건, 방문기업 지원 총 205명 등 당초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며,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2011년 코리아데스크 사업 실적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1. 상담지원(건)	200	185	200	202
2. 협력 알선 및 지원(건)	10	4	10	13
3. 정보자료 조사, 발간(건)	5	5	5	6
4. 한국 방문단 및 방문인사 지원(명)	100	139	100	205
5. 현지활동, 네트워크 기반강화(건)	40	36	40	56

2011년 6월 미국, 독일, 두바이, 일본 KBC(Korea Business Center)에 해외 파견 협력관을 각 1명씩 신규 파견하여 현지 네트워크 확장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협력관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베트남, 페루 등 신흥국가의 협력기관과 산업기술협력관 교환(22회),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지원(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계최대 기술거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EEN을 활용하여, EU 가입국 중소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간 폭넓은 산업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및 방한 지원 등 해외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 2011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 분	실 적	비 고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22회	베트남, 페루, 파푸아뉴기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10회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카자흐스탄/터키, 태국, 중국, 독일/러시아, 일본 등
국제회의 지원	5회	APEC 장관, 실무그룹회의(미국),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일본), 한일정례회의(경주) 등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를 통한 지원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05년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 혁신지원을 위하여 중진공 내 설치된 전담창구이다. '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설립, 운영되다가 '09년에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2011년에는 '10년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한국이 발의한 '그린이니셔티브' (중소기업 녹색 혁신촉진을 위한 APEC 차원의 실행계획)를 테마로 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2011년 APEC 각료회의(11월, 하와이) 공동선언문을 통한 지지 및 한국의 성과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은 "APEC 중소기업 혁신허브(HUB)" 기능을 목표로 협력분야(인적·정보·기술)별 세부사업 수행을 통하여 APEC 회원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유와 역내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을 도모하였다. 컨퍼런스와 워크숍 개최, 웹사이트 운영 등으로 역내 우수정책 사례와 제도 전파를 촉진하였고,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및 강화하였다.

■ 2011년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실적

협력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네트워크 구축 (인적교류)	APEC 그리노베이션 컨퍼런스	4월 서울, 17개국 230명
	그린이니셔티브 워크숍	12월 태국, 15개국 50명
정책전파 (정보교류)	혁신브리핑(Innovation Briefing) 발간	2회
	웹사이트(www.apec-smeic.org) 운영	상시
	그린이니셔티브 연구용역	1회
중소기업간 협력 (기술교류)	비즈니스상담회	미국, 26개업체 88건 294만불
	혁신컨설팅실시	26업체/5개국

혁신센터 사업은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國格)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 계량적 성과창출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글로벌 코리아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APEC 역내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FTA 활용 인프라 조성

EU·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하여, 2010년 2월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FTA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FTA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FTA활용지원센터는 FTA닥터(컨설팅)·국내외 FTA설명회·FTA체결국 진출전략 컨퍼런스 및 구매상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회계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여 애로를 해소하는 FTA닥터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관리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별 FTA 설명회 실시하여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FTA영향·효과 등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및 지자체·유관기관 담당자의 FTA활용 의식을 고취하였다. 특히 FTA 활용 해외설명회를 최초로 실시하여 한-인도CEPA, 한-ASEAN FTA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FTA활용전략 및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현지의 FTA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등 수출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EU와의 FTA발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장품 업종의 EU진출전략 컨퍼런스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EU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BMW·폭스바겐·로레알 등 평소 중소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EU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구매)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FTA활용지원사업 주요 실적

구 분	실적	주요 내용
FTA 닥터 (컨설팅)	820개 업체	FTA원산지확인·증명 및 원산지 관리방안 제시
업종별 EU진출전략 컨퍼런스 및 구매상담회	2회, 195업체	유럽 완성차, 화장품 기업의 구매전략 소개 EU시장의 특성 및 비관세장벽 소개 국내 중소기업과 구매실무진간 구매상담 유럽 기술현황 및 시장정보 제공
국내 FTA 설명회	7회, 1365명	정부의 FTA 지원정책
해외 FTA 설명회	4개국, 557명	FTA 체결국 시장 진출전략 등 해외마케팅 전략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유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와 협력파트너의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진출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는데 북미, 유럽 등 지역은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중국, 동서남아 등 기타지역은 기업 당 최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2011년도에는 38개국에 131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다. 특히, 전략프로젝트 수행사(3개사)를 선정하여 총 24개사에 대하여 현지판매거점지원 및 글로벌 전략 품목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 해외 유통기업 바이어(10개국 31개사)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유통망 접근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시장 동향 및 주요 해외 언론기사를 제공하고(11개국) 진출 전략(수출, 투자)등을 담은 주요국 진출가이드(8개국)를 발간하여 해외시장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357개사로 수출실적 552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

구분	민간네트워크수 (개사)	지원기업수 (개사)	수출실적 (백만불)	투자유치 (백만불)	현지법인설립 (개사)	기술협력계약체결 (개사)
2010년	115	275	274	1.5	34	18
2011년	131	357	552	1.7	25	20

사업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리서치기관((주)리서치랩)의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도움정도는 89.9%, 컨설팅 만족도는 83.9%로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수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국내교육을 거쳐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재외동포기업에 해외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11년 신규사업(중기청 수탁)으로 추진하였으며 '11년 4회에 걸쳐 220명의 수출 전문 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3개국 66개사에 193명을 해외인턴을 파견하였다.

이들 중 '11년 말 107명 인턴종료 기준으로 22명(20.5%)이 해외현지 또는 국내에 취업에 성공하였고 '12년에는 취업 목표인원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2011년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취업실적

구 분	정규직	계약직	인턴	계	취업률
인 원	18명	2명	2명	22명	20.5%

인턴과 수용기업 간 매칭 효율화를 위해 수용기업을 다양화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해외인턴 전문성 강화로 파견 즉시 실근무가 가능하도록 국내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추가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 2011년 저소득층 지원실적

구분	파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내)	비율(%)
인원	193명	7명	12명	9.84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협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대북진출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정보제공 등 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단계별 요구에 대응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은 정부의 2010년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진출기업의 사업추진이 여전히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남북협력지원사업 추진 여건 또한 위축되어 있었다. 이에 중진공은 체류인원 제한조치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4개사를 선정해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업 정상화 및 경영안정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현지에서 45개사 48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법인장 경영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 기회가 전무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들에게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여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였다.

6월과 10월 총2회, 폐쇄적인 개성공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지 법인장 11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상호교류, 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한 집중워크숍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11년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누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순업체수	금액
북한내륙지역		25	10,870	-	-	25	10,870
개성 공단	협동화	24	10,522	-	-	24	10,522
	개별	20	18,543	1	100	21	18,643
	소계	44	29,065	1	100	45	29,165
합계		69	39,935	1	100	70	40,035

간행물발간사업

중진공은 정보 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9년부터 중소기업 전문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2011년에도 매월 1일 중소기업 전문 경영·기술잡지 월간 ‘기업나라’를 발간하여 청년 창업, 녹색산업 등 사회적 관심과 중소기업 관련 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기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매월 제공되는 고정코너 ‘중소기업을 위한 성공 비즈니스 가이드’는 정책자금·R&D·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지원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간행물 정기구독자에게는 월간지 외에도 주요 중기지원시책을 요약하여 정리한 ‘2011 올해의 중소기업지원제도’와 중소기업의 세제 및 절세 길라잡이로 기획한 ‘2011 Q&A로 알아보는 세무정보’가 제공되었다. 또한,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웹진 운영, QR코드 제작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2011년 발간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발행시기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 월간 ‘기업나라’	매월1일	9,000부
단행본	· ‘2011 올해의 중소기업지원제도’	’11. 3	10,000부
	· ‘2011 Q&A로 알아보는 세무정보’	’11.11	10,000부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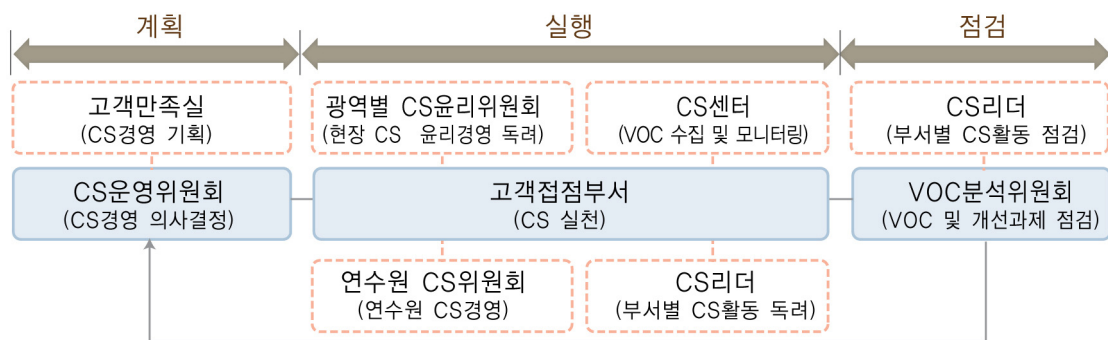


현장 중심의 서비스 향상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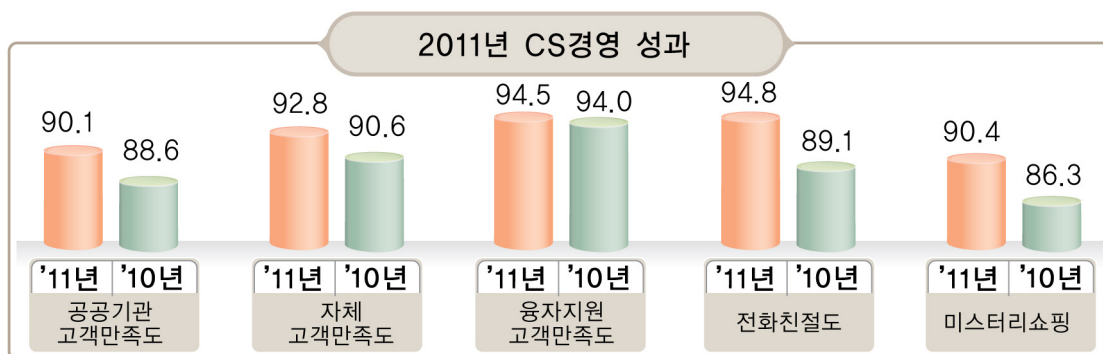
우리는 ‘고객가치흐름’에 따라 고객을 정의하고, 중소기업을 우리의 가치를 구매하는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였다. 핵심고객을 타깃으로 한 CS 실천을 위해 CS전략을 수립하였고, 현장 중심의 CS경영체계를 갖추어 계획→실행→점검의 프로세스 과정에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고객의소리(VOC)를 경영자산화하기 위해서 2009년 수립한 통합VOC시스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고객만족실과 정보관리처가 공동으로 2차 개선작업을 2011년 4월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전 직원이 VOC에 리얼타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불만고객의 신뢰회복(CCRS)과 VOC 기반 개선과제 프로세스 등도 정립되었다.

또한, VOC를 경영진에게 상시 보고하고 CS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이 고객이 ‘매우만족’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였다.

이렇게 CS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에 힘 쓴 결과,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90.1점을 획득,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이 되었으며,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 등 모든 CS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윤리경영으로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SBC

우리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윤리경영에도 힘썼다. 2011년 윤리경영의 목표를 ‘청렴과 신뢰문화 정착으로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SBC’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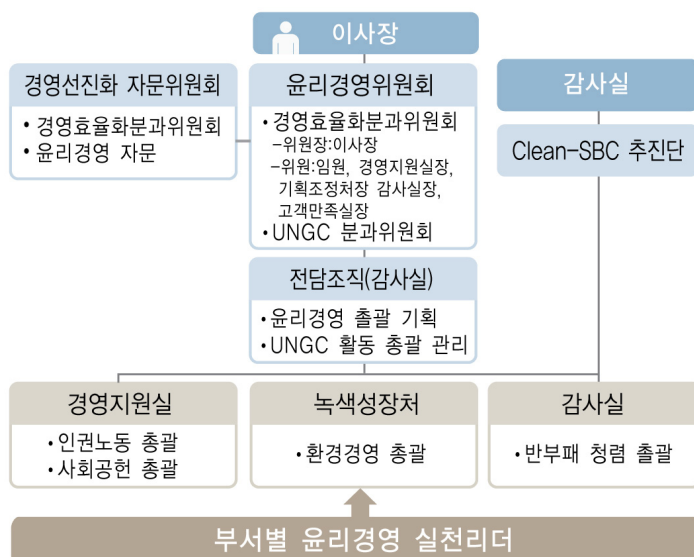
계층별로 직무청렴계약서, 반부패청렴서약서, 윤리경영실천서약서 등의 규범을 운영하였고, 직무별로는 자산운용담당, 정책자금 담당, 투융자심의 담당 등으로 구분하여 윤리서약을 받았다.

부패 사례의 사전·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윤리경영상담방과 불공정행정신고센터를 새로이 구축·운영하였으며, 윤리경영 퀴즈대회, SPOT 동영상교육 등 다가가기 쉬운 윤리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의 일상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고객접점부서의 윤리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중 지속 가능한 실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포상함으로써 윤리경영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우리 기관이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 컴퍼니(Good Company)가 되기 위한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35개사, 295명), 사회적기업 멘토링(종합진단 17개사, 맞춤연수 9개사, 원격연수 11개사)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사)사회적기업네트워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UNGC의 원칙을 지키고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도 추가하였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사회공헌활동 모습]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조직의 선진적 운영

청년창업활성화(12명), 자금사후관리(17명), 글로벌리더십연수원(4명)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및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 증원인력을 고르게 배정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업개편 방안에 따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신규사업 추진, 컨설팅 주관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력 제고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다.

추진과제	조직개편 내용
① 청년 CEO양성	■ 청년사관학교 전담 부서 신설 (기술창업실)
③ 컨설팅 주관기관 기능 수행	■ 컨설팅사업처 ⇨ (개편)진단사업처

또한 기존 기능별 임원제도를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본부장 체제로 변경(부이사장 겸 기획관리본부장, 기업금융본부장, 기업성장본부장, 중앙연수원장 겸 수도권본부장, 중부권본부장, 남부권본부장)하여 임원을 3개 광역 지역조직으로 전진배치하여 조직운영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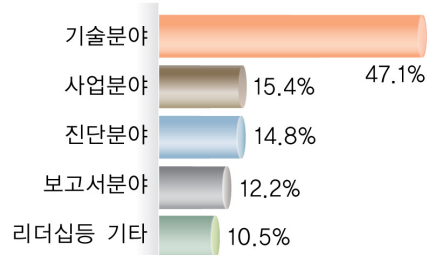
아울러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관할지역을 분할하여 7개 지부를 신설하고 본부슬림화를 통한 지역조직 인력을 보강(55명)하여 지역중심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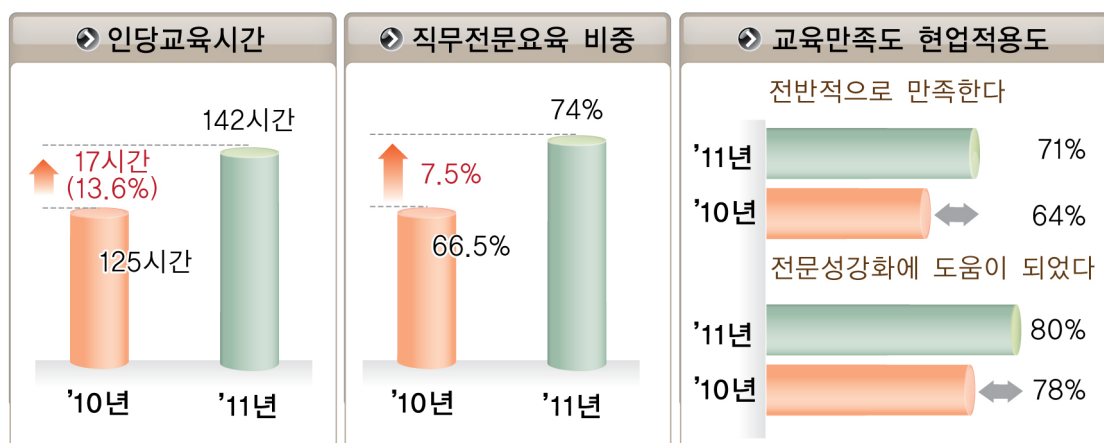
2011년은 「현장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중소기업 현장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업종전문가로서의 3대역량(업종역량, 진단역량, 행정역량)을 겸비한 “π 형인재” 육성 중심의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였다.

기술이해교육, 기업현장학습, 업종CoP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1인 1업종 전문기술교육을 시행하였고,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으로 누구나 기업을 토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중진공의 정책중개역할 강화를 위한 행정교육을 신규 추진하였다.

교육 실적				분야별 교육분포	
(단위 : 시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교육시간	86,964	107,050	23.1%		
• 공통	29,164	27,822	△4.6		
• 직무전문	57,800	79,228	37.1		
교육예산	1,274	998	△276		



또한, 직무분야로 이리닝을 확대하여 적시에 전사적으로 핵심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무교육 강화로 연간 인당교육시간 및 직무교육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2010년 관리자급 리더십교육에 이어 2011년에는 실무자중심의 리더십교육을 추진, 계층별 6단계 리더십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CS교육 및 공직가치 실천을 위한 윤리교육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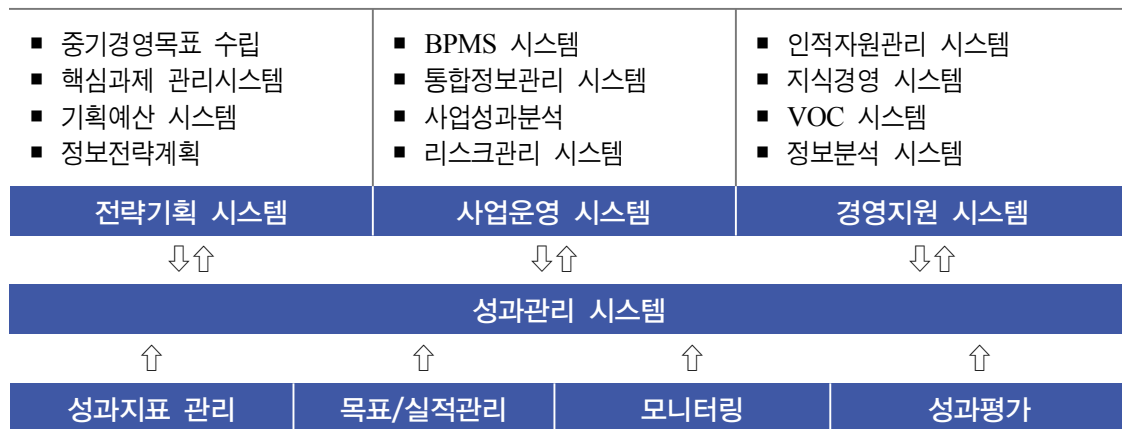
특히 신입직원 입문교육은 중진공 핵심가치(WITH)를 기반으로 기업현장방문과 사회공헌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진공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인지하였다.

2011년도는 중진공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해로서, 가족친화 전직원특강과 워킹맘교육 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추진하여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와 더불어 직원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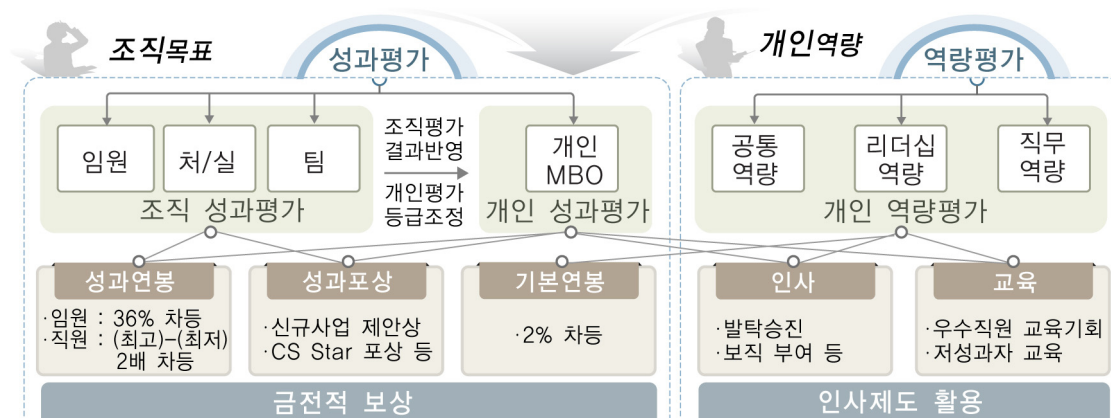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전략달성 동력 창출

성과관리 시스템과 기관운영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측정의 적정성을 향상시켰으며, 효과적인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차등으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로 전략목표 달성률을 개선하였다.

■ 성과관리시스템과 기관운영시스템의 연계체계



■ 능력 및 성과와 보상과의 연계 체계



■ 2011년도 전략목표 달성 실적

전략목표	'10년 실적(A)	'11년 실적(B)	개선율[(B-A)/A]
창업초기기업 지원비중	39.2%	46.1%	17.6%
고용창출기여도	3.7점	4.2점	13.5%
고객만족도 개선	86.6점	90.1점	4.0%

2012년 사업추진방향

2012년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황 및 저성장 기조 유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과 해외자원개발 강화를 통해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려고 한다.

이에 중진공은 2012년도에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청년창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건강진단을 통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의 엔진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중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의 모델”로 거듭난다는 3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등 4대 사업분야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현장과 함께 하는 “스마트한 비즈니스의 동반자(Smart Business Companion)”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1) 정책자금 융자

2012년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3조 3,330억원으로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비중을 확대하고 전략산업,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지원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은 전년대비 5% 확대된 85%, 창업초기기업은 전년대비 3.5% 확대된 35.0%, 소기업은 전년대비 2% 확대된 80%를 지원하여 정책목적성에 부합한 정책자금 집행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투자와 융자의 특성을 융합한 투융자복합금융의 신규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청년창업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금 내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설하고 중진공이 직접 수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연계 지원을 통하여 지원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융자방식을 진단, 평가 후 융자하는 건강진단 방식(1조원)과 자금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 후 융자하는 일반방식(2.3조원)으로 구분 운용하여 맞춤형 연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2011년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한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진단, 처방전 발급, 치유의 과정을 거쳐 정책자금 융자, 연수,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등 중진공의 각종 시책사업과 맞춤형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연계한 컨설팅 신규추진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하여 창업비용을 경감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은 국내에서 R&D 기술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전문 기술인력(190명) 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력의 조기적응을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2012년에 보다 강화할 계획(3회→4회)이다.

또한 녹색경영확산지원은 제조현장의 녹색경영 진단 및 개선을 통해 환경규제 및 에너지절감 대응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녹색경영 컨설팅 및 녹색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중소 그린 SCM)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연수

연수사업은 현장근로자 전문역량 강화 및 기업현장 애로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현장 방문연수 및 맞춤 연수과정으로 연수사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영 및 품질관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교육 후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에듀컨설팅(문제해결형 연수)”도 확대 실시하며, 신규 융합과정(이종기술, 기술 경영분야 융합)을 개발·운영하고, 혼합연수(이러닝과 집합연수를 연계) 과정을 지방연수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CEO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아카데미” 연수를 신규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현장채용연수”와 “마이스터고 연수”를 확대하여 취업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공공연수원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창업자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교육으로 전환하고 전담코칭 및 외부자문단을 병행한 창업코칭을 확대할 예정이다.

4)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

마케팅 및 글로벌협력사업은 정책자금 융자, 건강진단 및 기술지원, 연수 등 타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수요에 부응하도록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신규 발굴·추진 할 예정이다.

GobizKorea는 시장별(언어별) 온라인 무역관 도입을 통하여 수출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산업협력사절단 교환, 설명회 및 세미나, 국제회의, 글로벌 기술협력지원 등 글로벌 협력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정책교류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혁신허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부 록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2011년 발간간행물
2011년 주요행사
조직도
운영위원 및 임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주)중소기업유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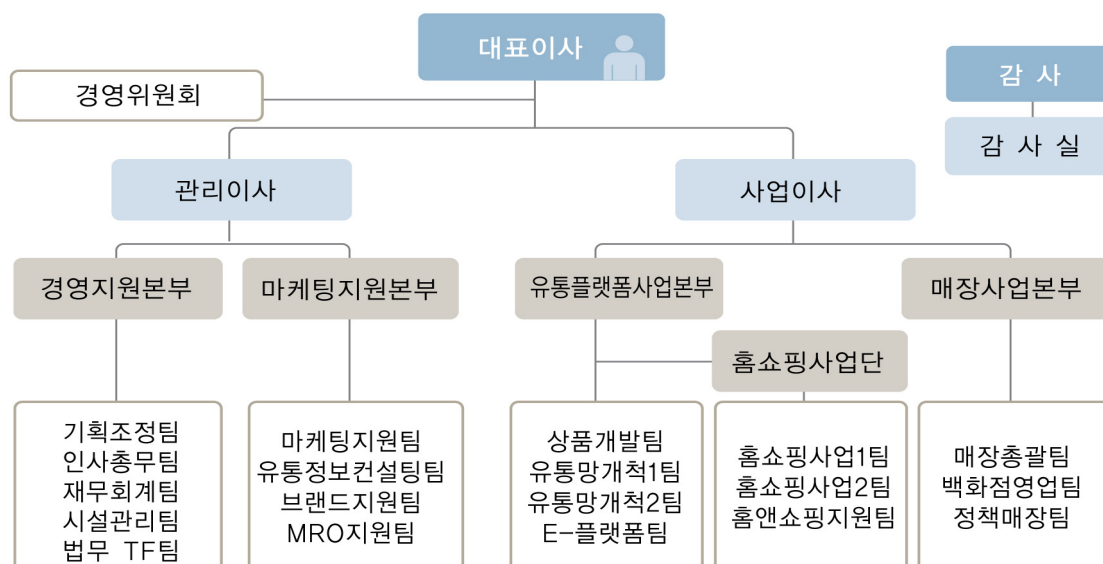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1999년 12월 3일 중소기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동 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여 2011년 말 현재 860여개 중소기업이 입점 중이며, 2008년 1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제13회 한국유통대상' 백화점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1년에는 홈쇼핑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1년 12월 시험방송을 시작한 중소기업전용홈쇼핑(홈&쇼핑)의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대형온라인 쇼핑몰 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구축하는 등 마케팅 환경변화에 부응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는 중소기업제품의 발굴·공급의 공적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능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공간의 제공을 통해 창업 및 판로를 지원하고자 동대문 두산타워 내에 '신진 디자이너 창업관'을 운영하는 등 미래 패션산업을 선도할 여성 디자이너를 발굴·지원하고 있고, 전국 5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중소기업 전용 판매관(홈&쇼핑)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사업, 공동상표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A/S센터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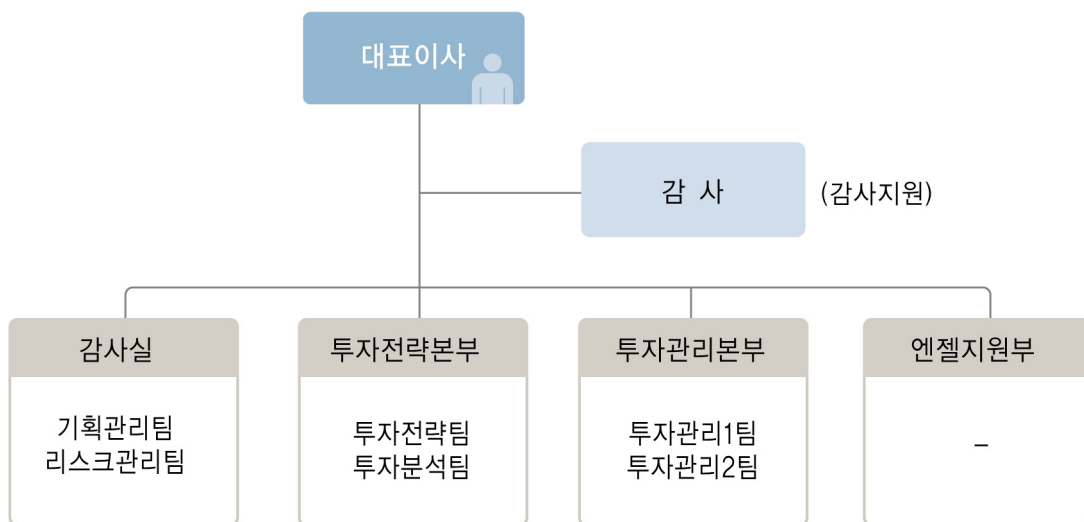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촉진법」에 의거 정부가 설립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운영 전담회사(舊 다산벤처)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한국벤처투자는 30년간 모태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으로 국내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226개 조합에 1조 5,857억원을 출자약정하여 총 6조 4,64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외 벤처투자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외의 LP(Limited Partner) 및 GP(General Partner)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Value Workshop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국내투자기관 대상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다. 또한, 해외 투자금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로드쇼를 2회 개최하였고, 해외 VC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벤처투자 Summit 2회 개최와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를 발간하였다.

조직 : 1실 2본부 1부



(주)SBC인증원

(주)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9000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1996년 1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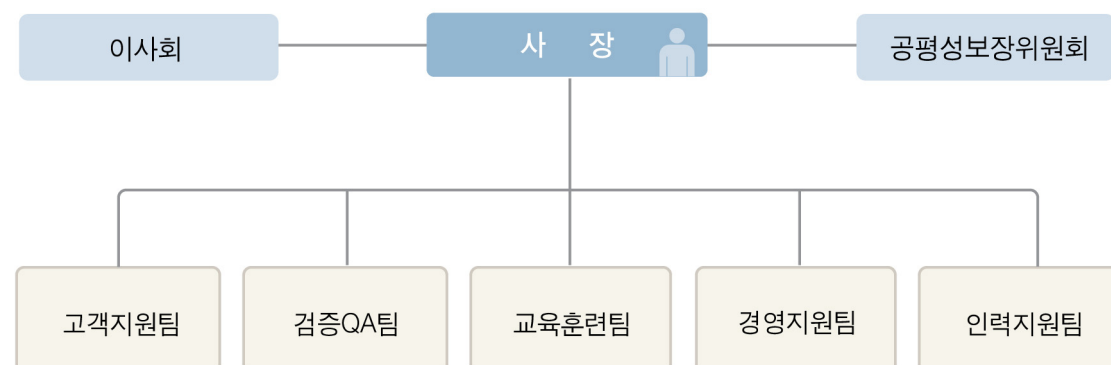
인증원은 ISO 9001(품질경영체제), ISO 14001(환경경영체제), TL 9000(정보통신 부문의 품질경영체제), ISO 22000(식품 부문의 품질경영체제), KS I 7001(녹색경영체제)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자체 개발한 소기업형 심사기법(3S시스템 심사모델)을 보급하고, 품질비용관리 및 개선추진가이드 개발을 통하여 고객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증보급 확대를 위하여 TS 16949(자동차분야)와 UL, CE 등 제품인증서비스를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22건의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 사업실적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8	566	1,922	34
2009	627	1,925	40
2010	612	1,961	76
2011	722	2,049	41

조직도



2011년 발간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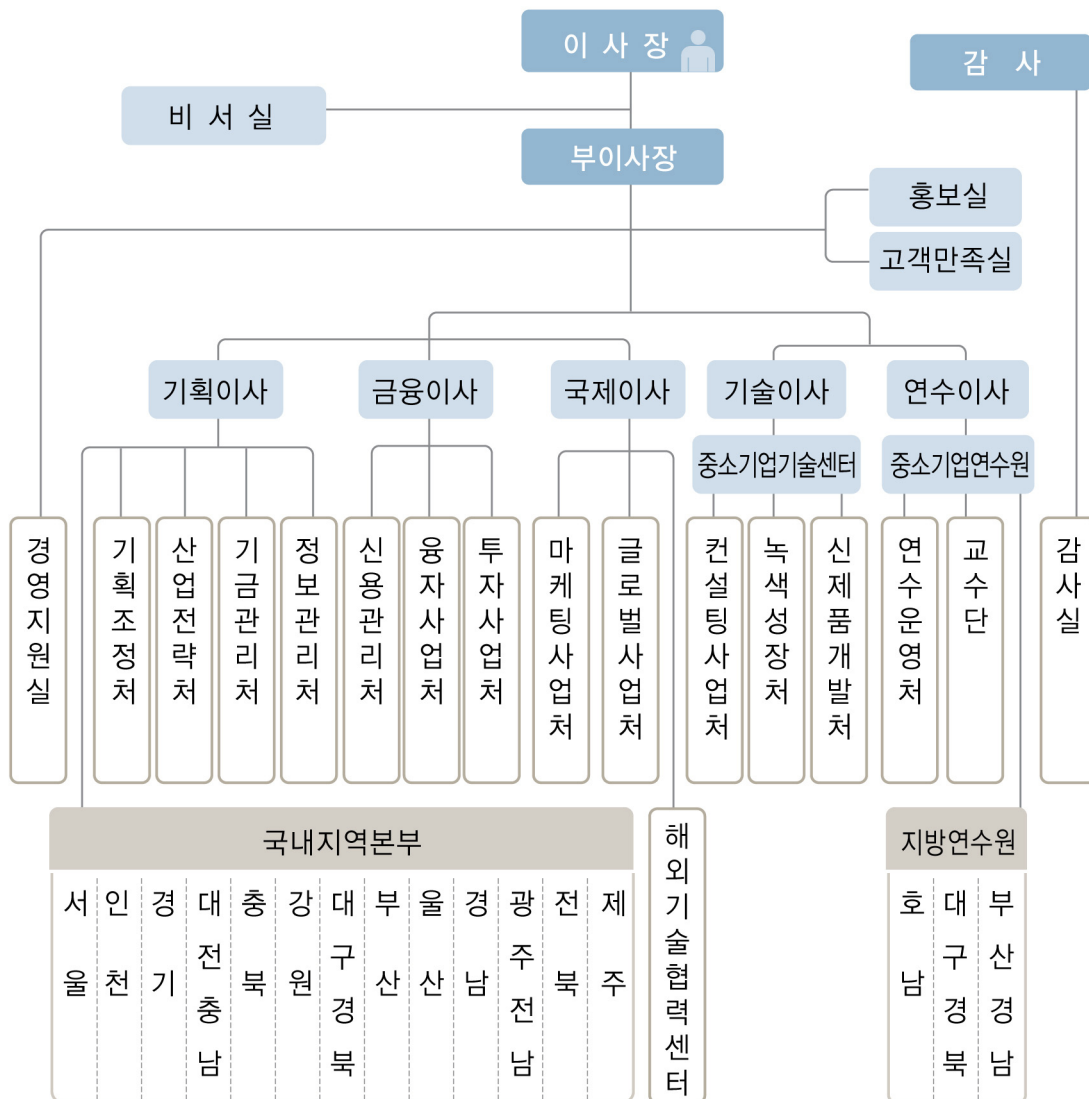
인도 비즈니스 진출가이드	'11. 1
행복창출의 마중물 기업들	'11. 1
2010년 종합진단 맞춤형연계지원 우수사례집	'11. 1
미국연방조달규정 해설 - 중소기업을 위한 미조달시장 진출 안내서	'11. 2
2011 중소기업지원 KEY	'11. 3
이유있는 변신, 이유있는 성공	'11. 3
2010년 연차보고서	'11. 5
2011년도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가이드북	'11. 7
희망을 넘어 성공으로 - 2011년 정책자금 성공사례	'11. 9
중소기업인의 고마운 편지	'11. 9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라	'11. 10
글로벌 파트너, “동행”	'11. 11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딤돌	'11. 11
(2011 Q&A로 알아보는) 세무정보	'11. 11
새로운 도약 그리고 도전 이야기 - 2011 중소기업 건강진단 우수사례집	'11. 11
(지역에서 일군) 특별한 선택 화려한 성공 -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 성공기업 스토리	'11. 11
2011 중소기업 정책, 그 새로운 시각 - 제 19회 중소기업 정책연구 및 체험리포트 공모전 수상작모음집	'11. 12
1:1 부품·소재도우미 사업비활용 가이드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터키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미국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러시아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브라질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독일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베트남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멕시코	'11. 12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중국	'11. 12

2011년 주요행사

1월	3일 2011년 시무식 7일 충북북부지부 개소식 27일 창립기념행사 28일 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
2월	9일 중소기업 회계선진화 및 투명경영확산 위원회 출범식 10일 글로벌 녹색협력지원센터 개소식 25일 업무협약 체결 및 중진공 사업방향 대토론회
3월	2일 2011 FTA 박람회 개막식 3일 여성벤처기업협회 간담회 31일 HIT500 브랜드샵 개막식
4월	13일 나라장터(조달청) 엑스포 19일 APEC 중소기업 그린이노베이션 컨퍼런스
5월	16일 중소기업인대회 17일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협약식 20일 경영선진화 자문회의 2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식
6월	15일 아셈녹색혁신센터 개소식
7월	1일 신임부서장임명장 수여식 22일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영후계자 졸업식
8월	4일 자산관리공사 MOU 체결 31일 전통시장 가는 날
9월	20일 2011년 국정감사 수감 27일 첫걸음 부품소재 발대식 29일 실물경제동향점검회의
10월	5일 2011 대한민국 벤처 창업대전 11일 세계지식포럼 19일 EU상의 MOU 체결
11월	21일 HIT500 페스티벌 28일 동반성장위 공로패 수상
12월	14일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창업대전 개막 30일 2011년 종무식

조직도

□ 9일 13차, 24지역본·지부, 3지방연수원, 1해외기술협력센터



운영위원 및 임원

운영위원

(2011년 12월말 현재)

구분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병천
위원	당 연 직 (4)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상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김준동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김정환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위 촉 직 (9)	중소기업학회	회장	김기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권태홍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순영
		한국재정학회	회장	손원익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철
		(주)성주음향	대표이사	최윤길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최정숙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창교
		한남대학교	교수	김종운

임원

(2011년 12월말 현재)

직 위	직무	성 명
이사장	중진공을 대표하고, 중진공의 업무 총괄	-
감 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이동호
부이사장	이사장 보좌, 경영지원, 홍보, 고객만족 등과 관련된 업무	전병천
기획이사	기획조정, 정책조사, 기금관리, 정보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겸직)
금융이사	융자사업, 투자사업,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송성호
국제이사	마케팅, 글로벌, 해외기술협력센터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유종진
기술이사	컨설팅, 녹색성장, 신제품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담당	윤응창
연수이사	중소기업연수원 및 지방연수원 업무 담당	최창호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경영자문 등의 업무	이윤보
비상임이사	"	구동모
비상임이사	"	김흥식
비상임이사	"	서영옥
비상임이사	"	조의환
비상임이사	"	이희만
비상임이사	"	강병희
비상임이사	"	정병인